

무주군립요양병원 본격 추진

상반기 착공 2023년 건립... 지역주민 불편해소·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도움 기대

무주군에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무주군립요양 병원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어르신 돌봄 생활시설인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가 있지만 안정적이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취지에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무주읍 당산리 637번지 일원(연면적 5,100㎡)에 지하1층, 지상3층, 126병상 규모의 무주군립요양병원을 건립한다.

군은 군립요양병원 개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0월 또는 연내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요양원 등

보건의료·사회복지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과 연계성이 우수한 부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진료실을 비롯한 물리·재활치료실, 병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두루 갖추게 돼 의료시설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요양병원 건립으로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 조성될 무주군립요양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3년 완공 후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치료와 돌봄이 함께 요구되는 환자를 위한 시설이 확충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이 불가능한 가족들의 불편과 걱정도 일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앞으로 건립될 군립요양병원은 취약한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해 군에서 공공보건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소외계층이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있다"며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립요양병원은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산 장려 정책 가득

첫만남이용권·임신 축하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원

진안군은 2022년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학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및 온라인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도움미) 이용 시 국비 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90%를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생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귀농귀촌인 분야 지원사업 신청 받아

무주군은 새해를 맞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무주군에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귀농귀촌인 분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은 귀농인 보다 귀촌인의 유입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기존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했으며, 귀농귀촌인이 무주군에 완벽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군이 올해 추진할 귀농귀촌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군은 신청자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귀농귀촌 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오는 2월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일까지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장수군이 영농 작업 환경개선과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2년 농작업 안전관리사(농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를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번기 원터 및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안전관리사(농막, 20㎡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주소가 장수군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급근 내 사업추진 및 완료 가능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용도로 사용할 경우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막 개소당 600만원까지(자부담 6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국비 144억 원 확보·100호 공급

장수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4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장수군 지역에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0세대대의 고령자복지주택과 1,5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맞춤형 주택으로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종말재가센터, 경로식당, 어르신 쉼터 등이 설치되며, 군은 이곳에 보건, 의료, 복지를 담



장수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낸 맞춤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들이 건강과 여가,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 거점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장수군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장수읍 지역소요맞춤형 120세대 공공임대주택과 장계면 140세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 3일 진안읍과 부귀면 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11개 읍·면 순회하며 소통 시간을 갖는다.

전춘성 진안군수, 새해 연초 방문 주민 소통

7일까지 11개 읍·면 순회 다양한 의견 수렴

전춘성 진안군수가 오는 7일까지 2022년 새해 연초 방문에 나선다.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는 주제를 갖고,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연초방문은 하루에 2~3개 면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나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다.

지난 3일에 진안읍과 부귀면 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소통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정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며, 진안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인 의견은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연초방문을 통해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모두가 잘사는 진안 만들기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진안군은 오는 7일까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규채용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미취업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중년(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을 고용하는 관내 기업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12개월 간 사업 참여를 완료한 청년 및 신중년에는 2년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3분기로 분할 지원하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신규채용근로자 뿐 아니라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 후 농촌활력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